

존되어 있고, 매년 선질꾼의 후손들이 당신제(堂神祭)를 지낸다. 최근 울진군이 개축하였다.

2) 울진 소광리 황장봉계표지석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 황장봉계표석은 울진에서 봉화로 가는 국도 36호선에 위치한 장천교에서 5km 정도 들어간 소광리 도로변 대광천 계곡 옆에 위치한다. 주민들은 이 지역을 ‘장군터’로 부르고 있다. 이 봉계표석은 자연석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규모는 가로 245cm, 세로 195cm, 높이 86cm이다. 오른쪽에 가로와 세로 60여cm 정도의 공간에 19자가 새겨져 있으며, 왼쪽에는 세로 40cm 정도의 길이에 4자가 새겨져 있다. 글자 크기는 대체로 8cm, 한 획의 굵기는 8mm, 음각의 깊이는 약 3mm 정도이다. 왼쪽 면에는 ‘산직명길(山直命吉)’이라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 면에는 ‘황장봉계지명생달현안일왕산대리당성사회(黃腸封界地名生達峴安一王山大里堂城四回)’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표석의 내용은 황장목의 봉계지역을 생달현(生達峴)·안일왕산(安一王山)·대리(大里)·당성(堂城) 네 지역으로 하고, 이 지역을 명길(命吉)이라는 산지기에게 관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3) 울진금강소나무 육종림

산림청(山林廳)에서 대광천의 소나무를 육종림(育種林)으로 지정하였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묵은 천연림(天然林)인 소나무의 군락지(郡落地)를 자연 그대로 육종림(育種林)으로 보존하고 있다.

1865년(고종 2) 이래 경복궁(景福宮)을 중건(重建)하는 재목(材木)은 대광천(大光川) 육종림(育種林) 내에서 생산된 황장목[黃腸木; 울진금강소나무]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경복궁(景福宮) 복원 당시 이곳의 황장목을 사용하였다. 정부에서 이곳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기려 타임캡슐을 조성했다.

제7절 쌍전1리(雙田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이 마을은 사방(四方)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앞으로 36번 국도가 지나가고, 답운재(答雲峠)에서 발원(發源)한 냇물이 흐르고 있다. 마을의 동쪽은 삼근2리, 서쪽은 광회2리, 북쪽은 소광2리와 멀리 높이 솟은 진조산(眞鳥山)이 있고, 남쪽은 통고산이 높이 솟아있다. 마을회관은 2005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700년경에 윤진사(尹進士)라는 선비가 개척하였고 그 후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입주하면서 조전(鳥田)이라 하였다. 마을 이름을 쌍전(雙田)이라 부르게 된 것은 새밭과 달밭 두 곳에 큰 밭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1) 깨밭골(荏田谷)

이 마을은 지대가 높고 산전(山田)이 많으나 토질이 비옥하여 다른 작물보다는 참깨를 많이 재배한다고 하여 깨밭골(荏田谷)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지금은 고랭지 채소(高冷地 菜蔬) 주산지(主產地)이다.

2) 너다리골

1705년에 개척하였으며 사방(四方)으로 통한다고 하여 너다리골(四達)이라 부른다.

3) 대봉전(大鳳田)

대봉전(大鳳田)이라 함은 큰 봉(鳳)이 날아가는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60년대 초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당시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주축이 되어 활기찬 부락으로 주목받았다.

4) 대우치(大牛峙)마을

큰 소와 같은 형국이라 하여 대우재(大牛峙)라 불렸으며 36번 국도가 개설되기 전에는 교통로(交通路)의 역할을 하였다.

5) 덕거리(德巨里)

36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태백산맥(太白山脈)의 분수령(分水嶺)인 답운재(踏雲峙)에서 발원하는 냇물이 마을 앞으로 흐르고 있다. 덕거리(德巨里)라는 마을 이름은 큰 덕행(德行)의 인물이 출생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삼근초등학교 쌍전분교(雙田分校)가 1954년에 개교되어 학생이 많을 때는 71명까지 되었으나 1994년에 폐교되었다.



<그림 6> 덕거리

6) 맹산터(孟山基)

1770여 년 전에 맹씨(孟氏) 일가족이 화전민(火田民)으로 입주하여 생활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다.

7) 복상터

통고산 심미골(深美谷) 입구 도로변에 2세대가 농사짓고 살았으나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다.

8) 불근이(佛近)

옛날에 마을 가까이에 절(寺)이 있었다 하여 불근이(佛近)라 불렀다.

9) 용소목이

덕거리(德巨里)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왕피천(王避川) 상류에 용(龍)이 있는 소(沼)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0) 진전(眞田)

토질이 좋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면적이 작고 교통이 불편하여 3세대가 살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50세대가 거주하며 영양 남씨(英陽南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김해 김씨(金海金氏)가 주로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천제당(天祭堂)

대봉전(大鳳田) 마을 앞 독미산에 천제당(天祭堂)을 모시고 3년마다 전 동민(全洞民)이 모여 천신(天神)께 제사를 올리고 동민의 태평무사(太平無事)와 풍농(豐農)을 기원한다.

2) 성황당(城隍堂)

자연부락별로 성황당(城隍堂)이 5개소가 있으며 매년 1월에 마을 제사를 지낸다.

3) 심미골(深美谷)과 자연휴양림(自然休養林)

통고산의 심미골(深美谷)은 골이 깊고 무성하여 아름다우며 옛날에는 산 중턱에 절(寺)이 있었다 하여 지금까지 이곳 지명을 “절터”라 부르고 있다.

이곳에 화전민(火田民)이 몇 세대 살았으나 모두 떠나고 지금은 산림(山林)이 무성하여 있다. 이러한 입지 조건에 따라 산림청(山林廳)에서 통고산휴양림(通古山休養林)을 조성하였다.

4) 쌍전리(雙田里) 산돌배나무

높이 25m, 가슴높이 둘레 4.35m이다. 가지 길이는 동쪽으로 6m, 서쪽으로 8m, 남쪽으로 9m, 북쪽으로 11m이다. 수령은 약 250년이다. 나무줄기와 잎이 무성하고 수세(樹勢)가 왕성하여 매해 3~4가마의 돌배를 수확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산돌배나무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 보존 가치가 높아 1999년 4월 6일 천연기념물 제408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